

[보도자료] F1 생중계는 쿠팡플레이에서! 쿠팡플레이, 1일 바레인 그랑프리 시작으로 2024 포뮬러1 전 경기 생중계!

2024. 2. 28.



쿠팡플레이가 F1 바레인 그랑프리 개막전을 포함한 전 라운드를 디지털 생중계한다.

- 3월 1일(금) '시즌 프리뷰쇼'부터 2024 F1 전 그랑프리 디지털 생중계
- 올해 싱가포르·일본·중국·이탈리아·아부다비 등 다수의 그랑프리 직접 찾아 현장 생중계와 리포팅까지 서킷 열기 생생히 전달할 예정

2024.02.28. - 쿠팡플레이가 오는 1일(금) '포뮬러 원 걸프 에어 바레인 그랑프리 2024(이하 바레인 그랑프리)'를 시작으로 '2024 FIA 포뮬러 원 월드 챔피언십(이하 F1)'의 전 그랑프리를 생중계한다. 이와 함께 현장 중계와 리포팅으로 작년보다 더 많은 그랑프리 현장을 직접 찾을 계획을 발표하며 모터스포츠 팬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

쿠팡플레이는 바레인 그랑프리의 출발 순서를 정하는 '퀄리파잉'과 올 시즌 첫 번째 우승 드라이버가 결정되는 '레이스'를 각각 3월 1일과 2일 저녁 11시 50분(한국시간)에 생중계한다. '걸어 다니는 F1 백과사전' 윤재수 해설위원과 뛰어난 순발력의 안형진 캐스터가 '시즌 프리뷰쇼'부터 '레이스'까지 호흡을 맞출 예정이다.

쿠팡플레이는 바레인 그랑프리 퀄리파잉 시작 1시간 전인 1일 저녁 11시 50분부터 시즌 프리뷰쇼를 진행한다. 올 시즌 관전 포인트

부터 서킷 분석 및 프리시즌 테스트를 바탕으로 한 시즌 예상 결과 등 깊이 있는 분석을 제공한다. 특히 이번 바레인 그랑프리는 일부 팀들이 팀명과 머신(레이스 카)을 재정비한 뒤 맞이하는 첫 그랑프리인 만큼, 10개 팀 총 20명의 드라이버 소개부터 오프 시즌 기간 일어난 변화들을 꼼꼼하게 짚어줄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9월에 열리는 싱가포르 그랑프리를 2년 연속 현장 생중계로 선보이고, 이외에도 일본과 중국, 이탈리아, 아부다비 등 다수의 그랑프리에서도 현장 리포팅으로 생생한 분위기를 전달할 예정이다. 쿠팡플레이는 앞서 2022년부터 국내에서 유일하게 F1 경기를 한국어로 중계하고, 지난해에는 국내 F1 파트너 최초로 싱가포르 그랑프리 현장 생중계를 선보여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한편, 이번 시즌 F1은 12월까지 총 24번의 그랑프리를 진행한다. F1 역사상 최초로 드라이버의 팀 변동 없이 맞이하는 새 시즌으로, 팬들의 응원 열기는 어느 때보다 뜨겁다. 26세의 '젊은 황제' 막스 베르스타펜(레드불·네덜란드)이 4연패를 노리는 가운데, 다음 시즌 페라리 이적을 발표한 '살아있는 전설' 루이스 해밀턴(메르세데스·영국)이 메르세데스에서 보내는 마지막 시즌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취재 문의 media@coupang.com